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30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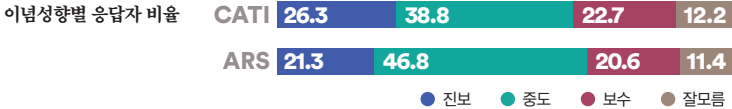
제45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레이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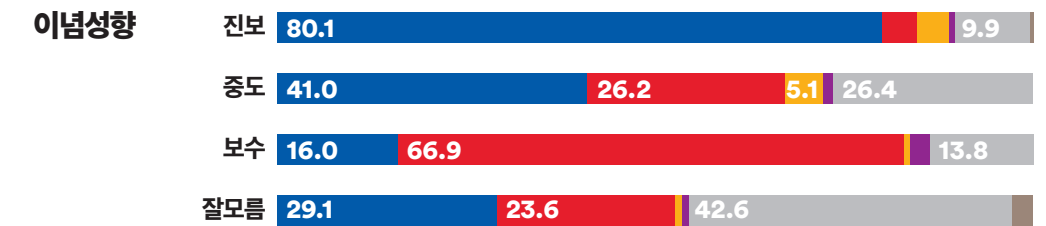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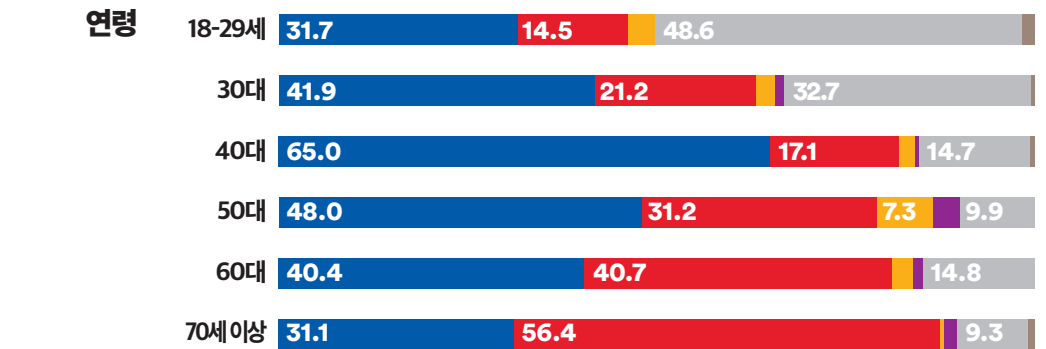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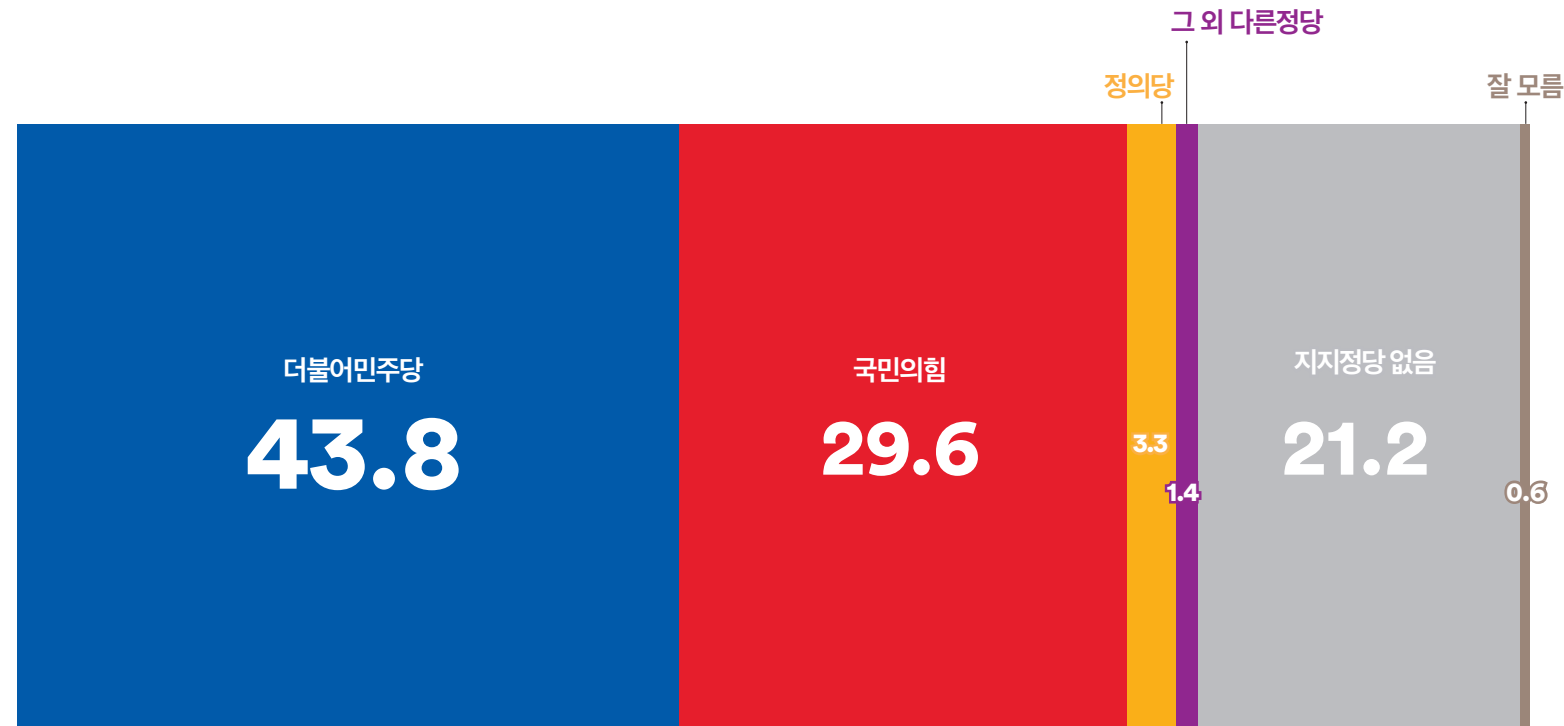


ARS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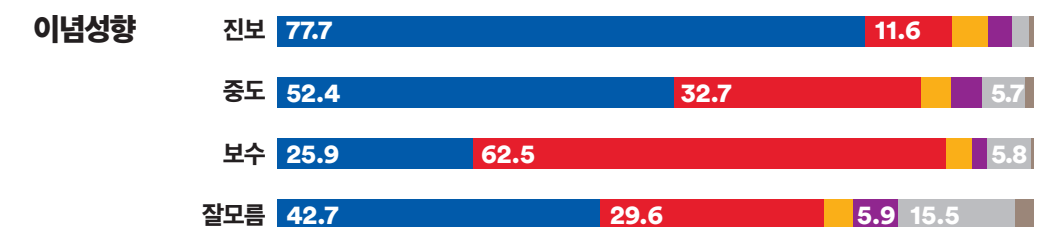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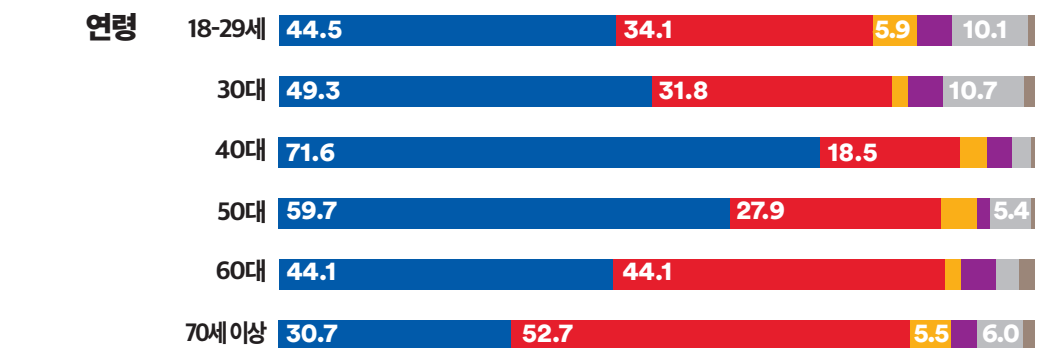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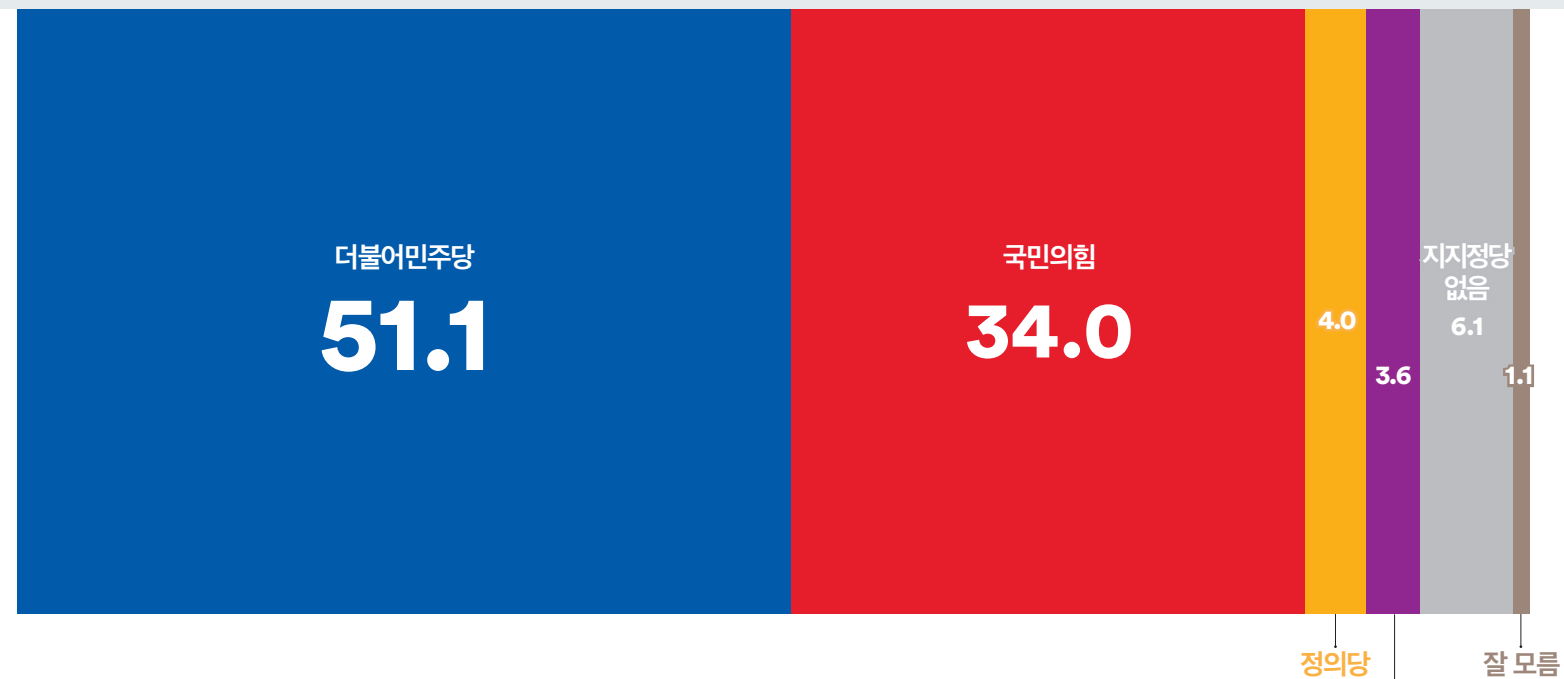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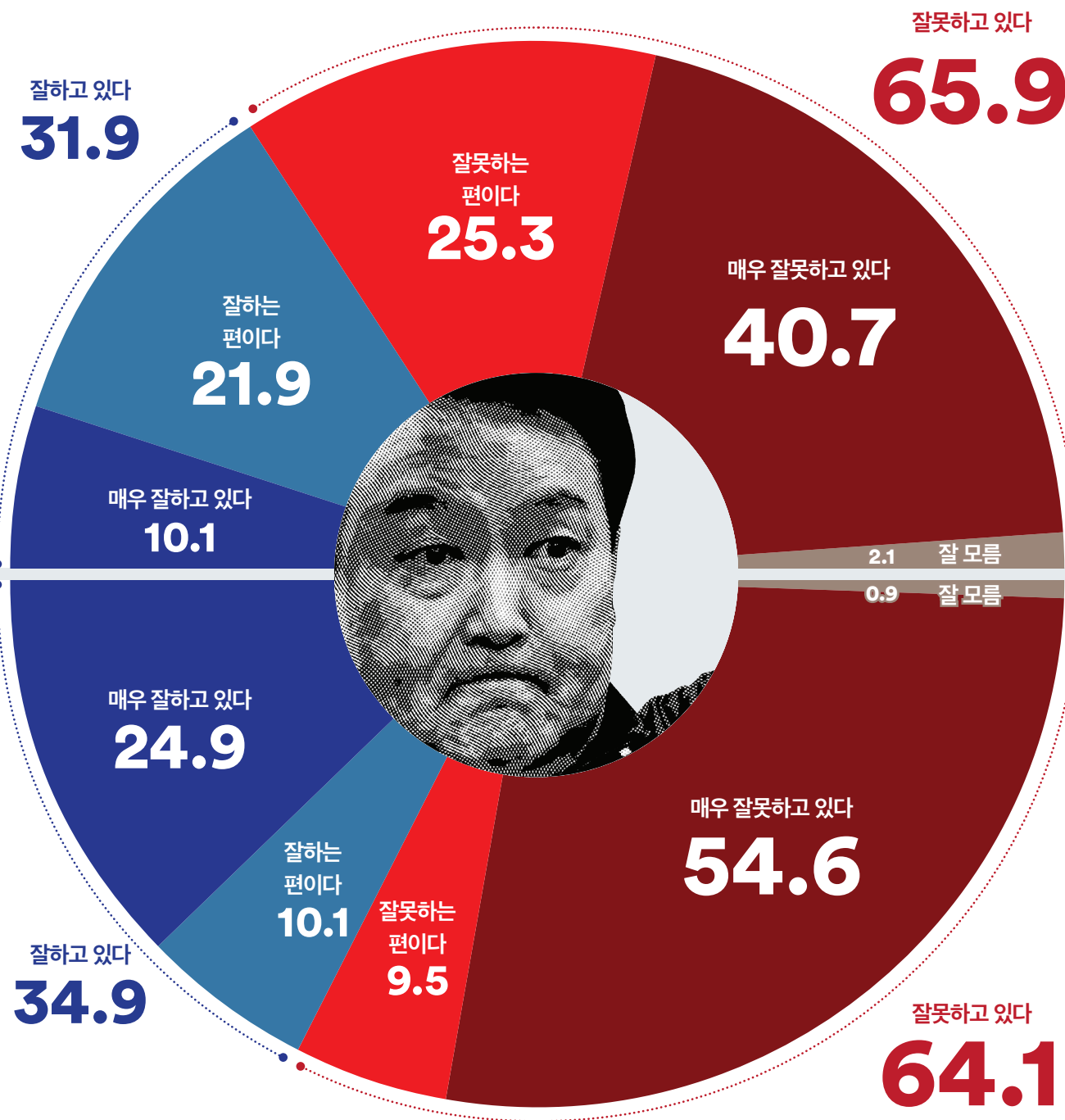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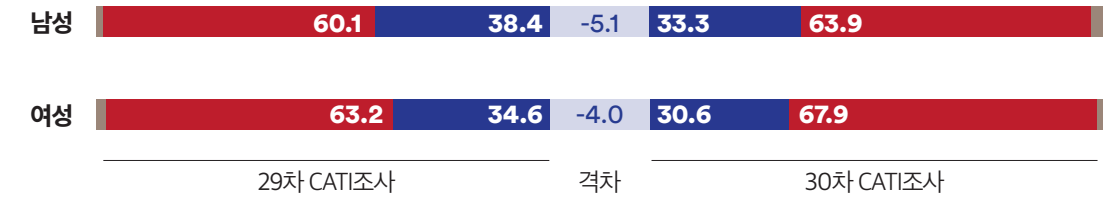
지난 29차 CATI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3.2%p 하락 (격차 14.2%p)
 지난 44차 ARS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4%p 상승, 국민의힘 6.3%p 하락 (격차 17.1%p)
 2주 전 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소폭상승, 국민의힘 큰 폭 하락
 양당간 격차는 다시 두자릿 수로 벌어졌고, 더불어민주당 우세가 유지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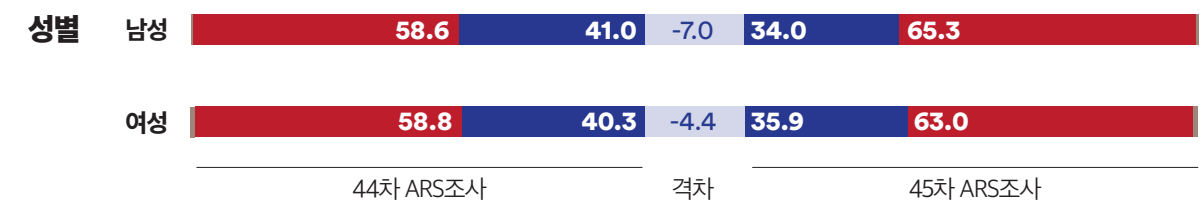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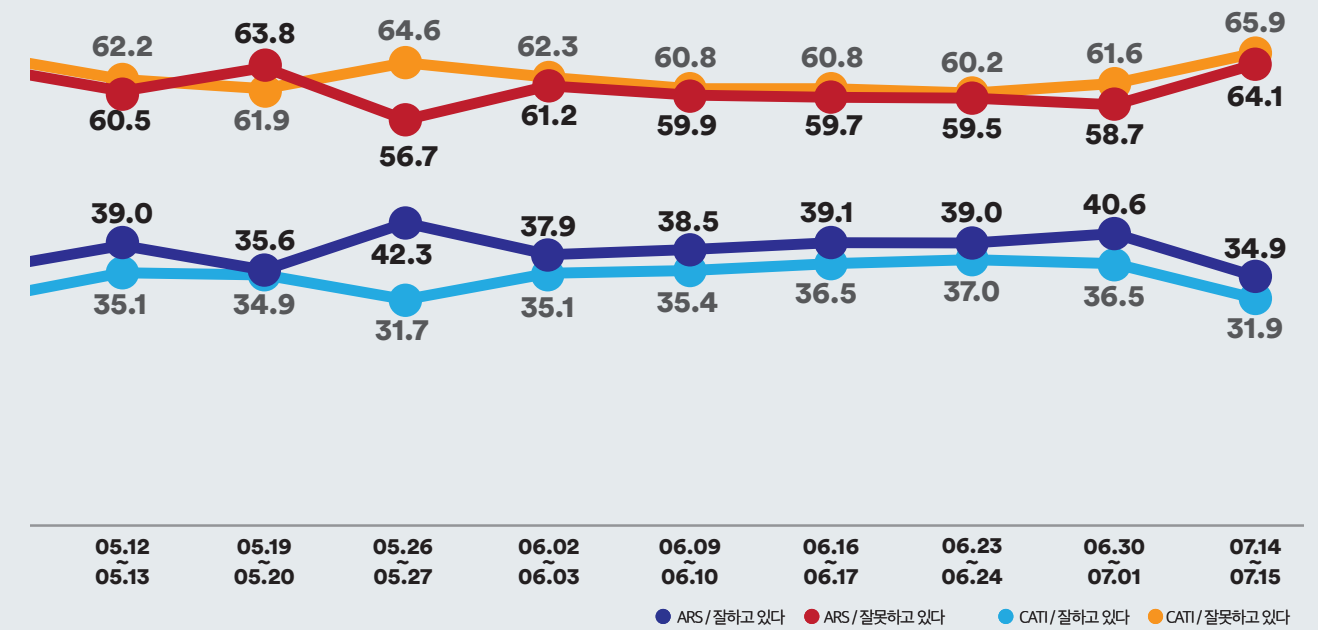
CATI



지난 29차 CATI 조사 대비 긍정평가 4.6%p 하락, 부정평가 4.3%p 상승 (격차 34.0%p)
 지난 44차 ARS 조사 대비 긍정평가 5.7%p 하락, 부정평가 5.4%p 상승 (격차 29.2%p)
 남·녀 모두, 50대 이하 응답층,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진보층·중도층에서 부정평가 우세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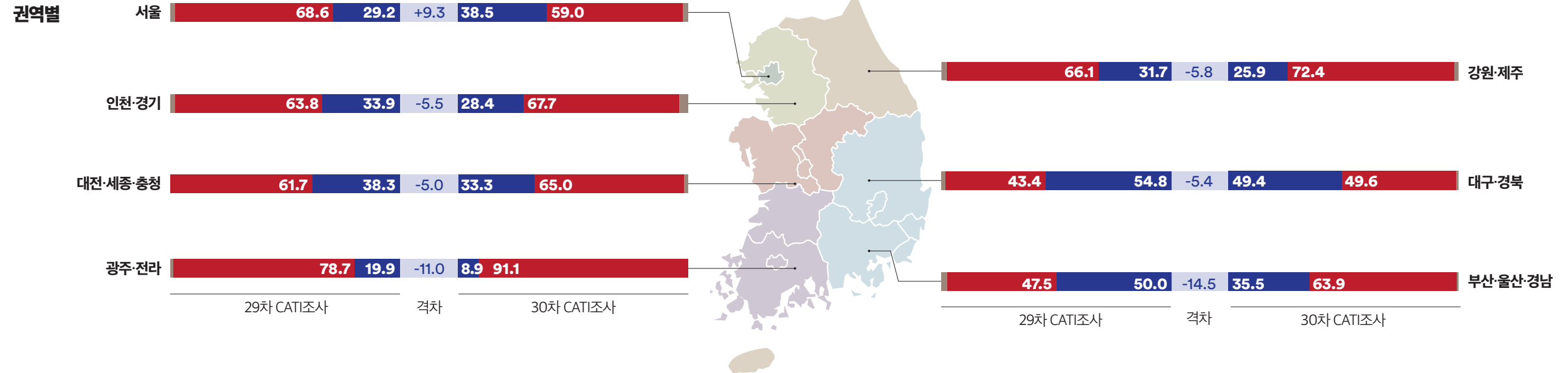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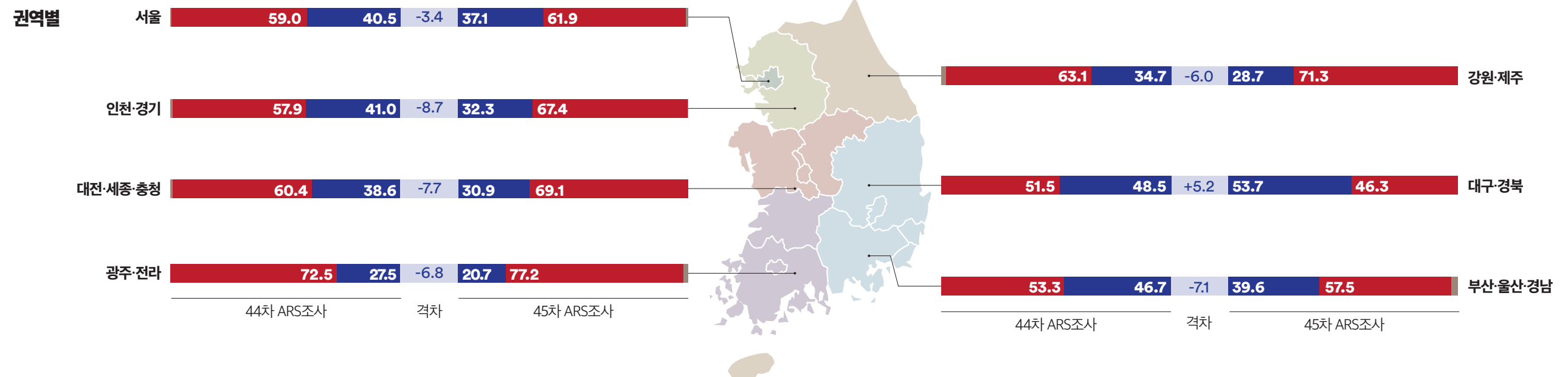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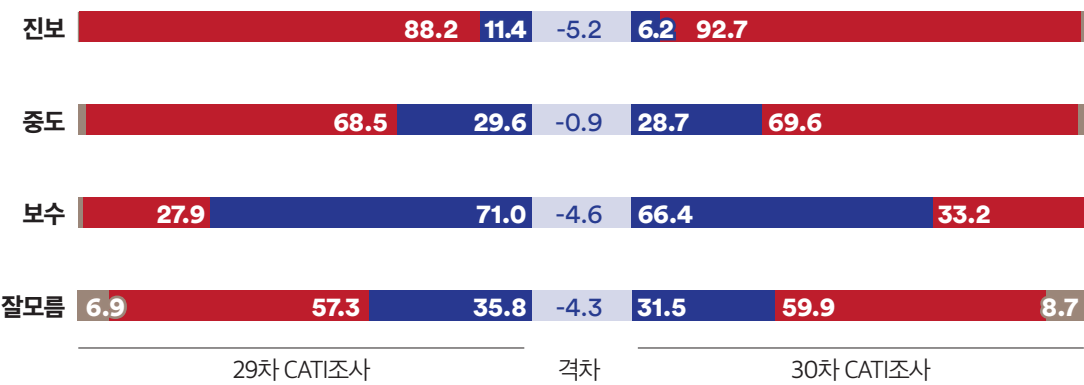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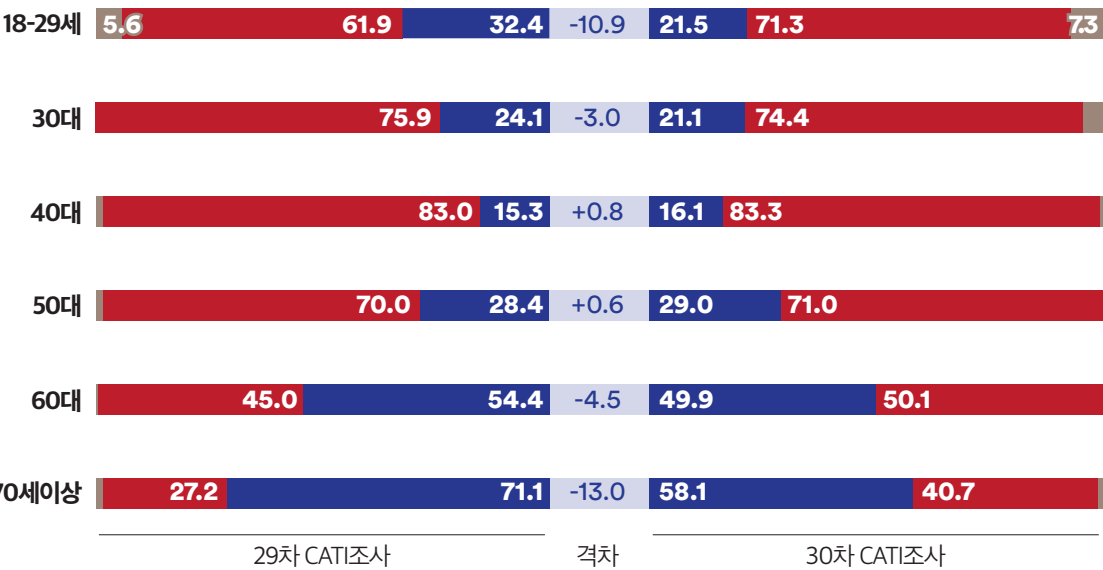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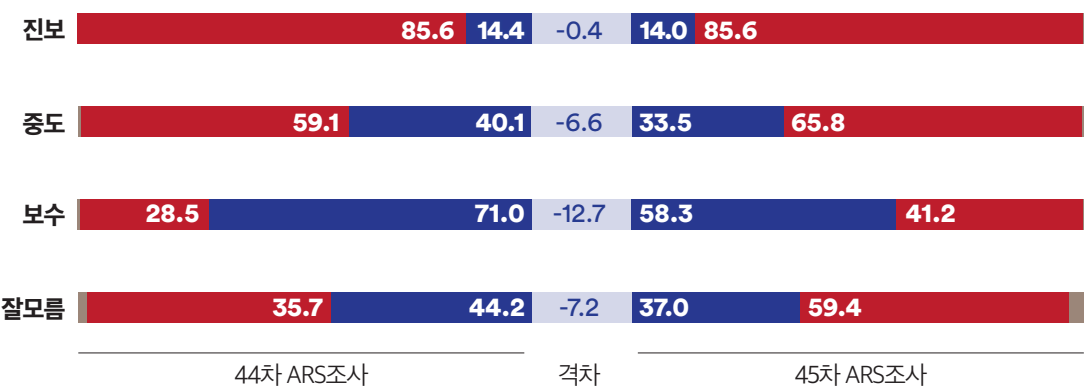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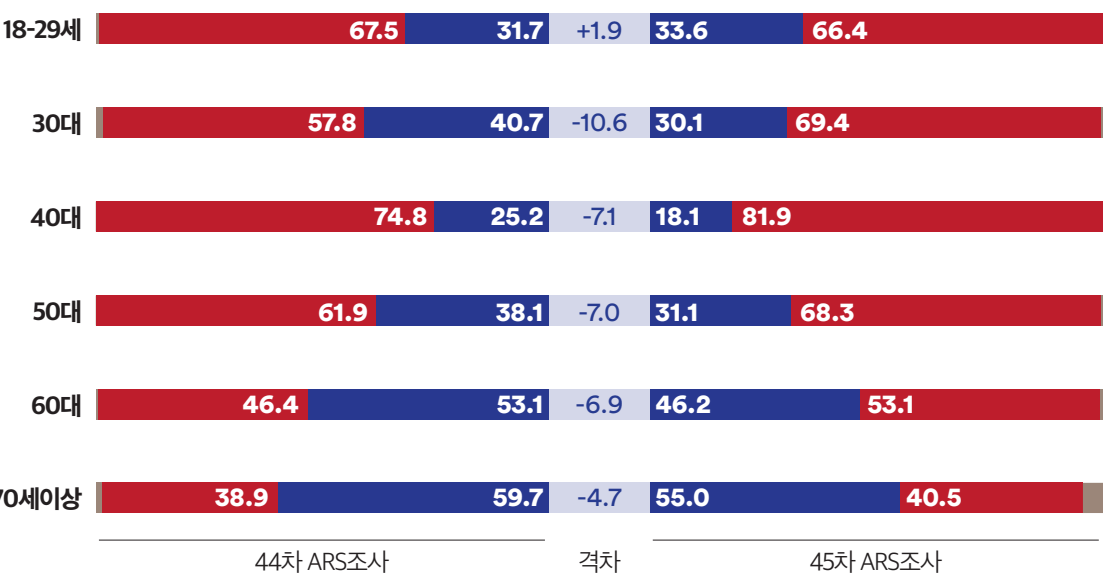


ARS

이념성향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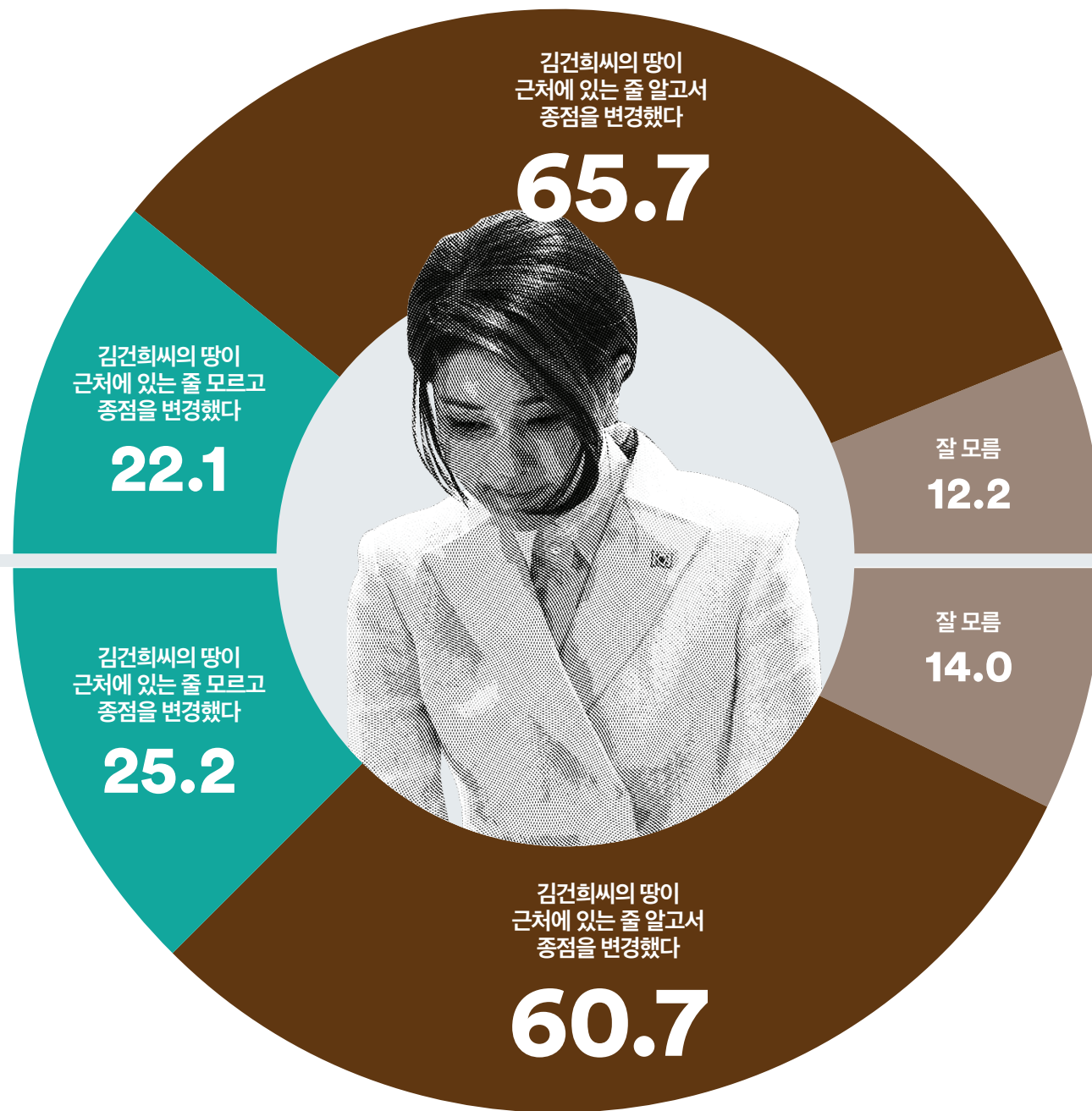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국토교통부가 이미 예비타당성심사를 통과한 양평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을, 대선 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가 소유한 토지 근처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 주장 중 어떤 주장을 더 신뢰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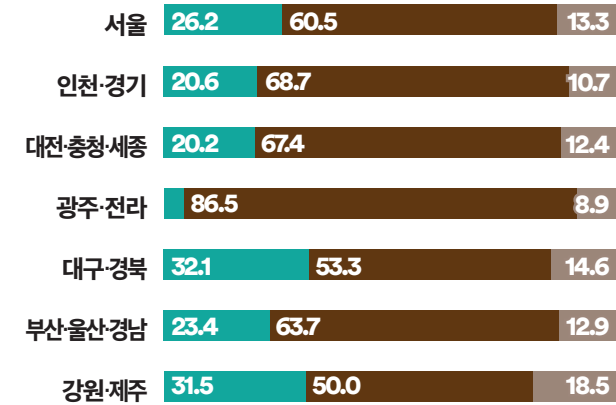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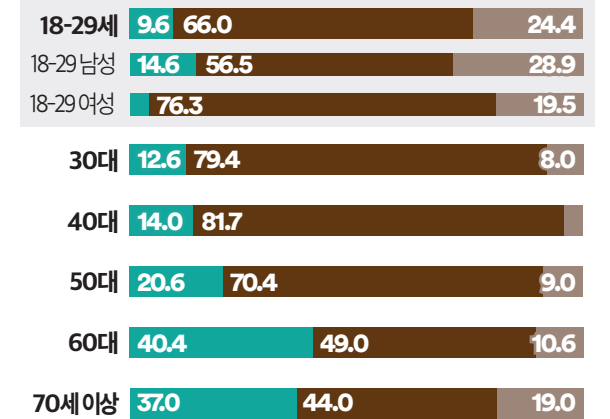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국토교통부가 김건희씨의 땅이 근처에 있는 줄 알고서 종점을 변경했다'라고 응답
두 조사의 모든 권역, 50대 이하 응답층, 무당층과 중도층에서 '알고서 변경한 것'이라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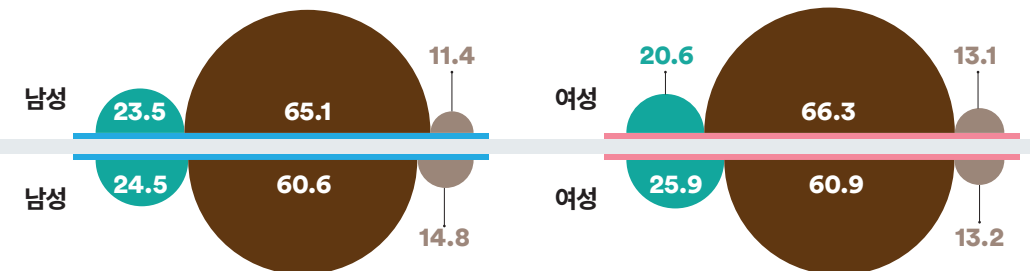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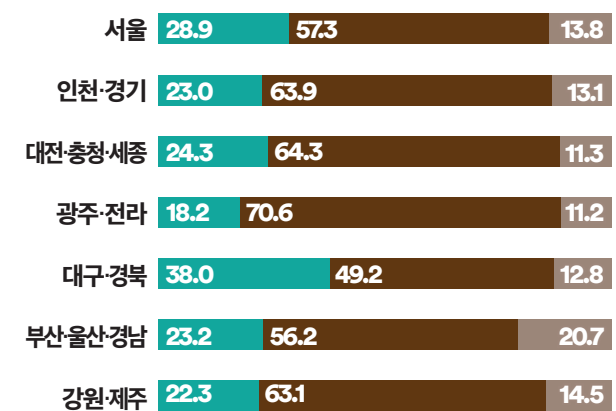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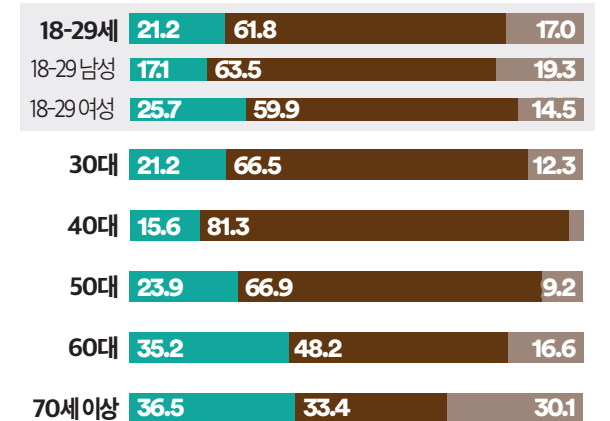
성별



권역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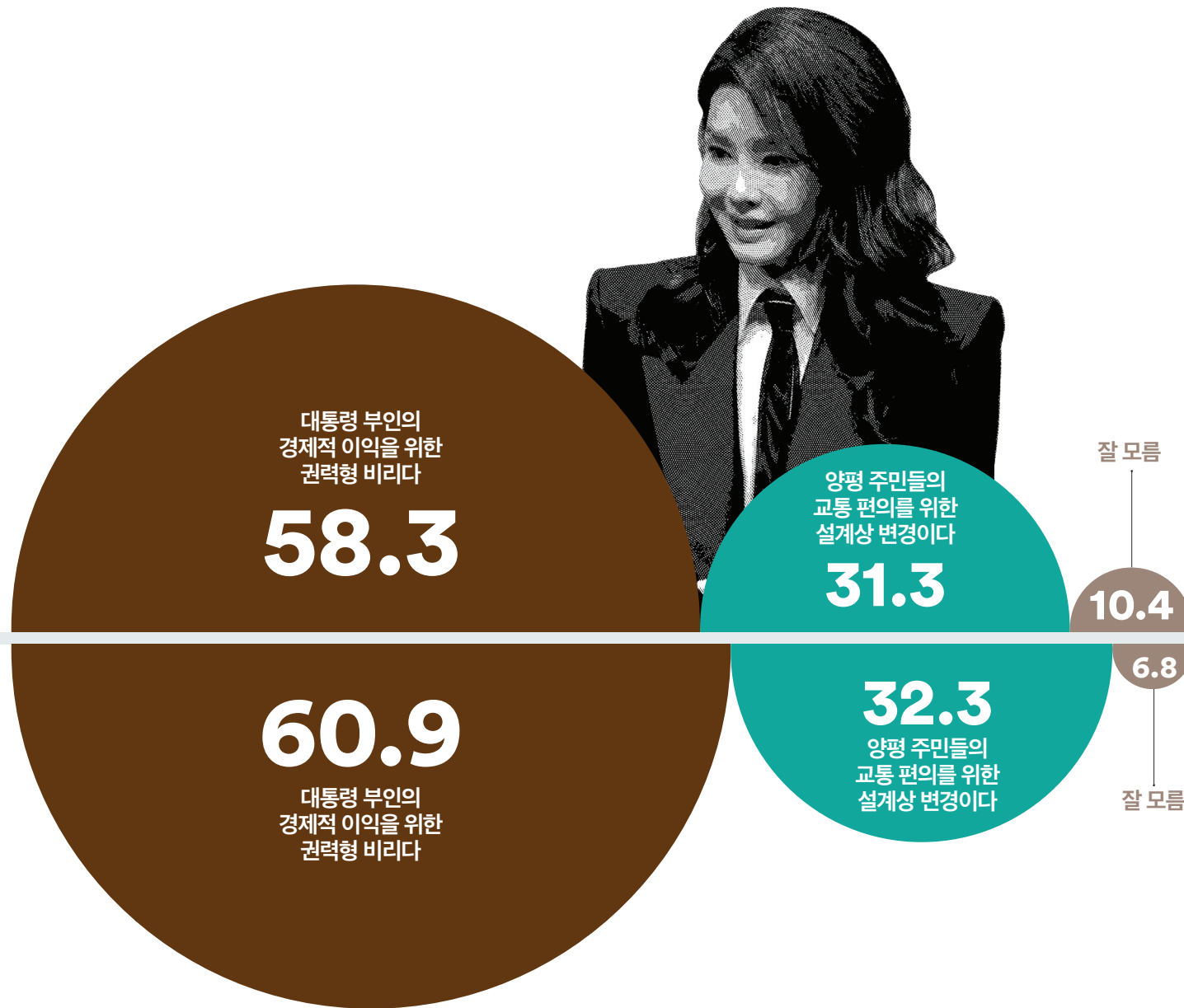
모르고 종점 변경 알고서 종점 변경 모르겠다



Q.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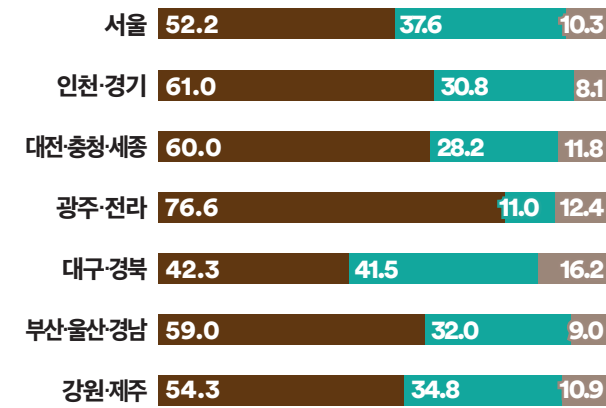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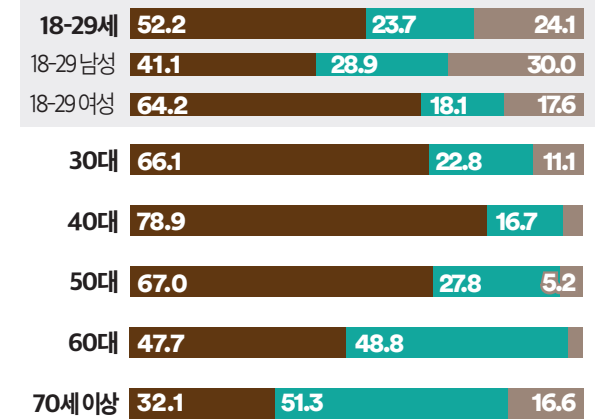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6명 정도는 '대통령 부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권력형 비리'라고 응답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권력형 비리'라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설계상 변경'이라는 응답이 우세
이전 문항에서 '국토부가 모르고 변경했다'고 응답한 계층의 90% 이상이 '설계상 변경'이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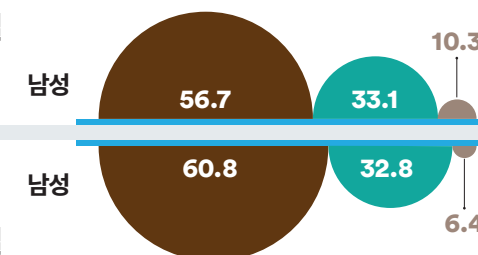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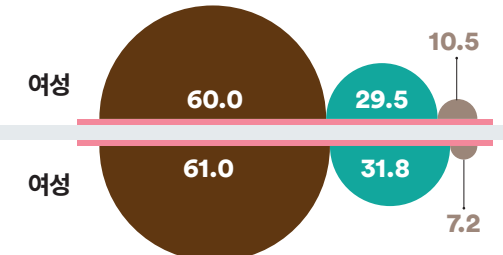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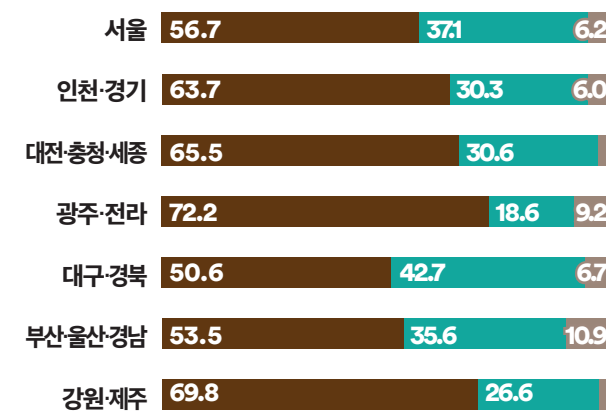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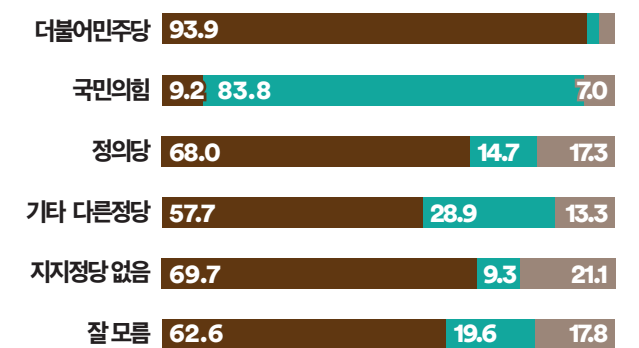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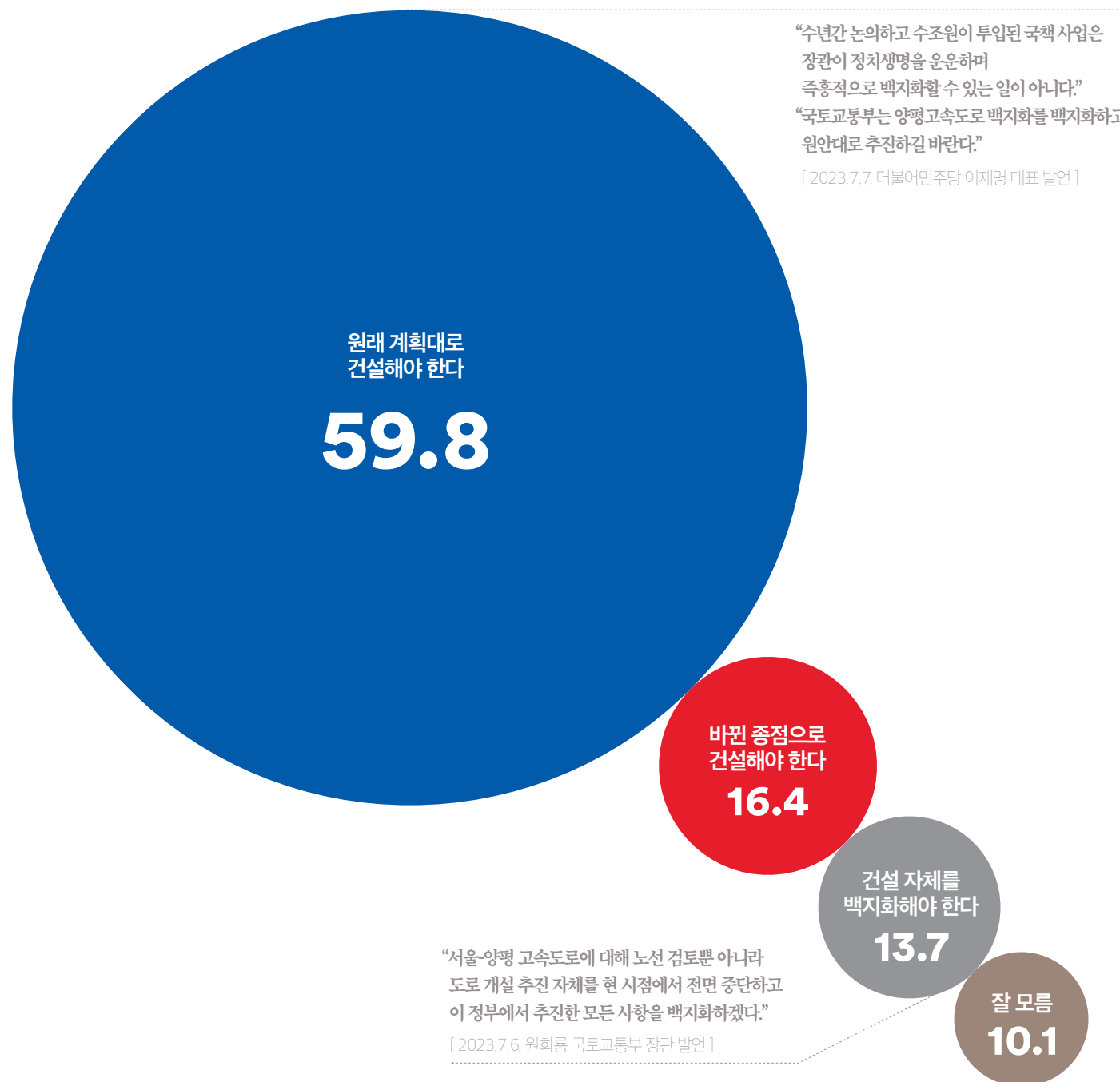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권력형 비리 설계상 변경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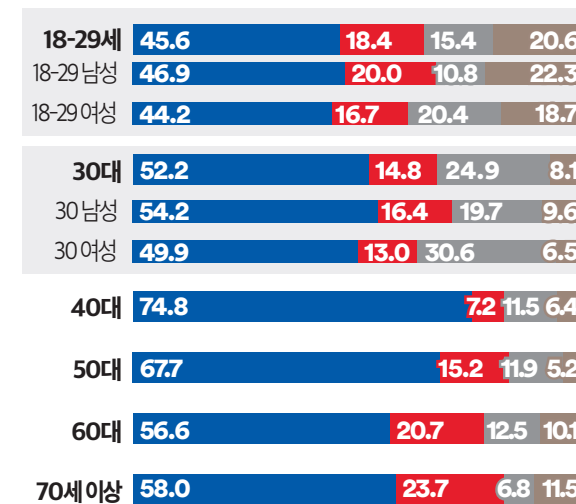


Q.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다음 의견 중 어떤 의견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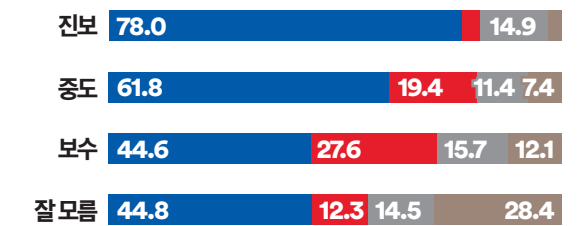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정도가 ‘원래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바뀐 종점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응답(16.4%)과 ‘건설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응답(13.7%) 대비 모두 압도적 우세
원래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은 ‘원래대로(34.9%)’/‘바뀐종점으로(38.1%)’, 보수층은 ‘원래대로(44.6%)’/ ‘바뀐종점으로(27.6%)’이라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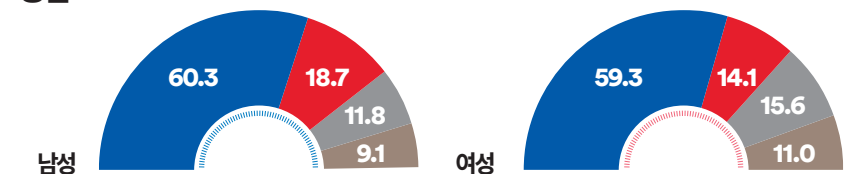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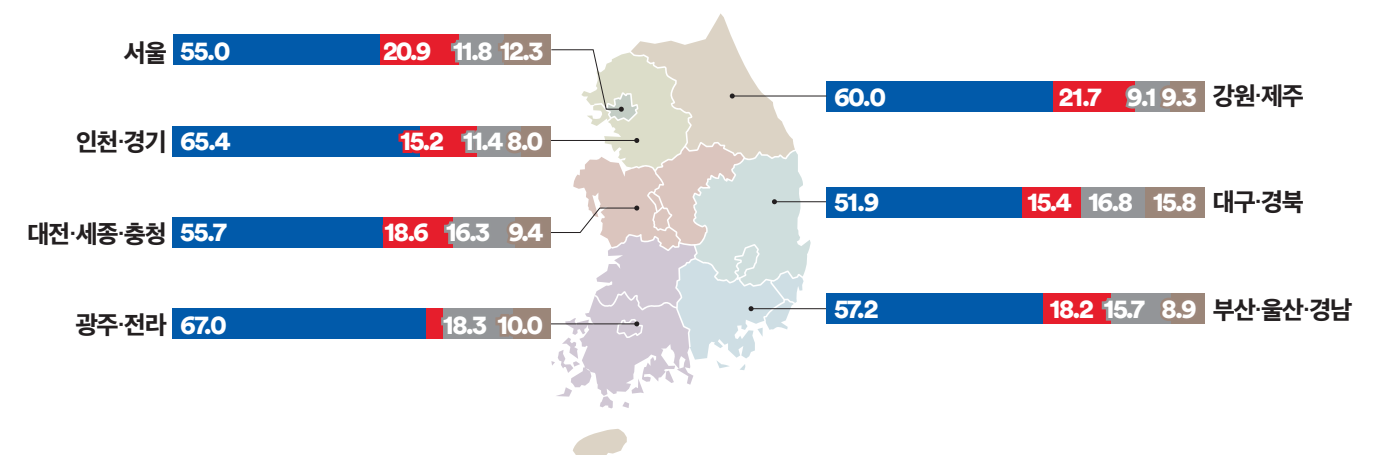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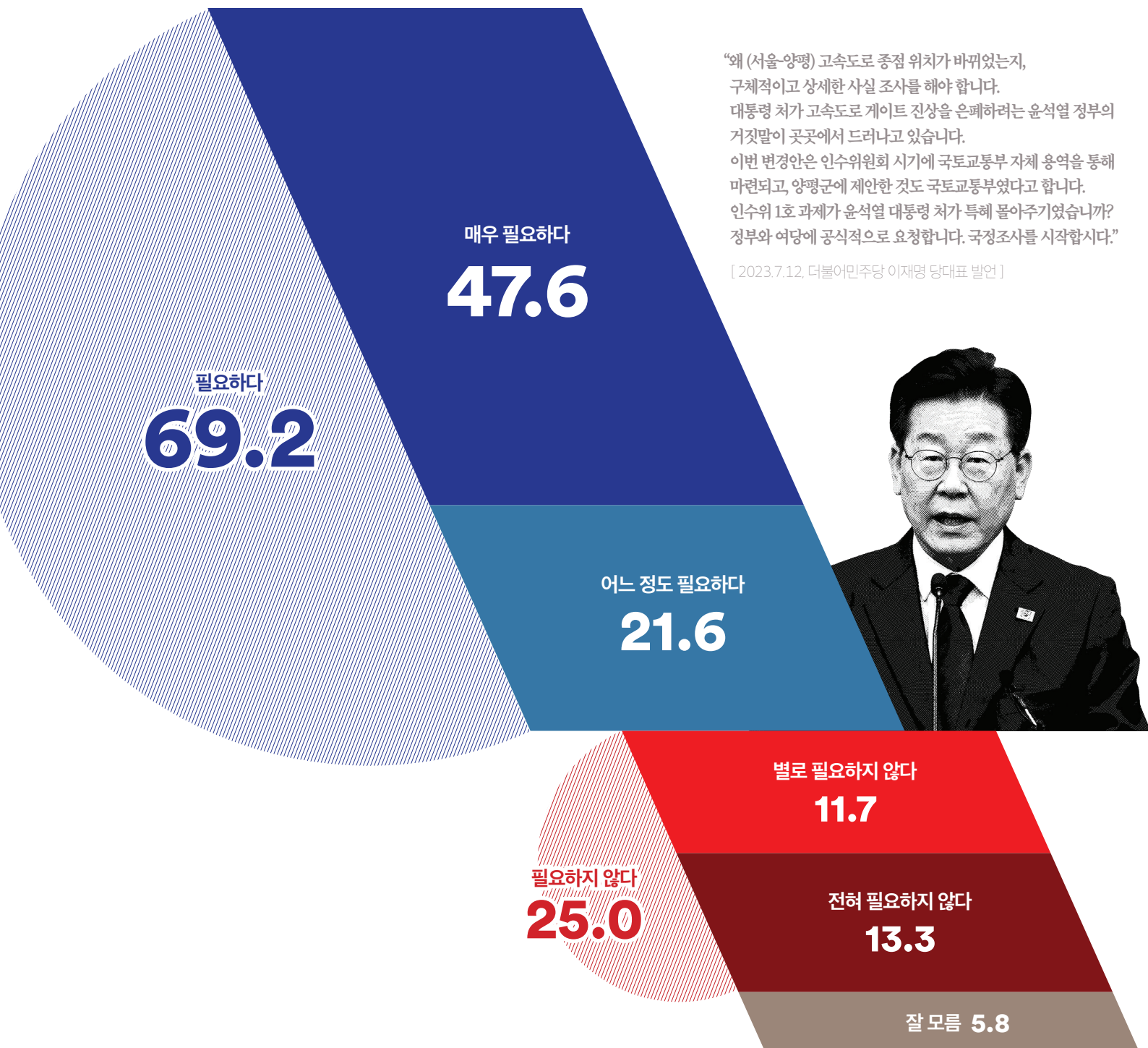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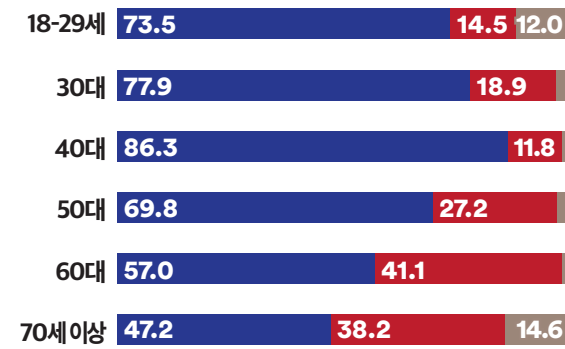


원래 계획대로 바뀐 종점으로 백지화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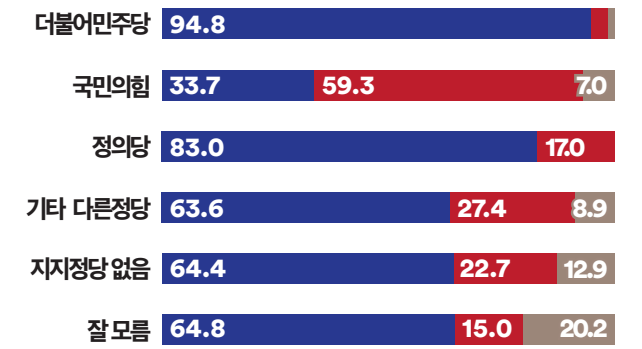
Q.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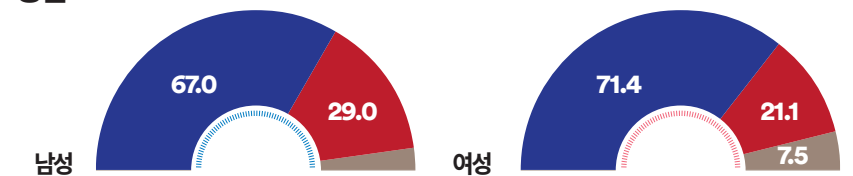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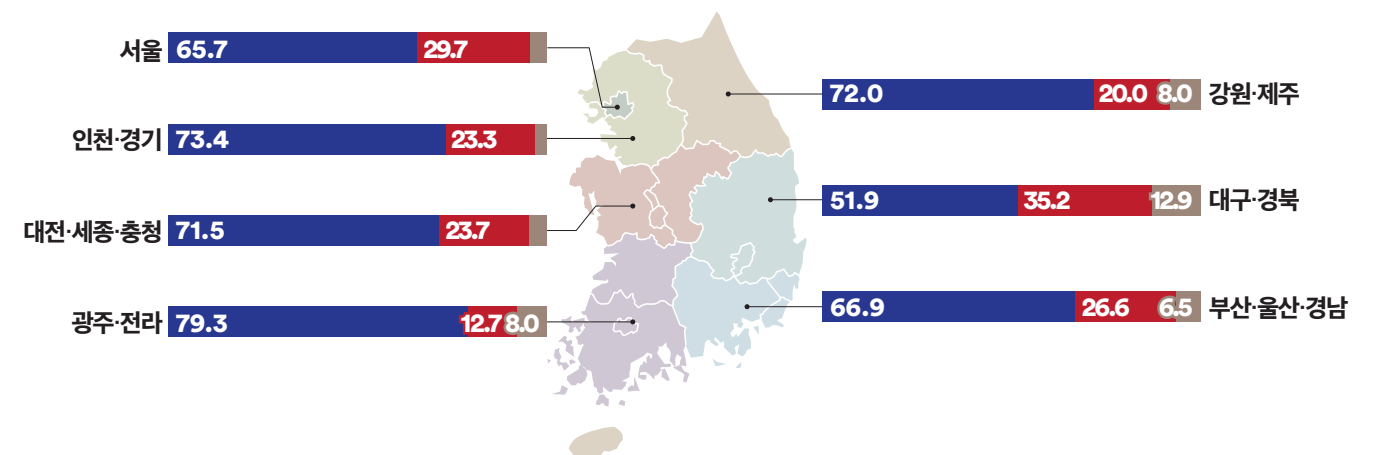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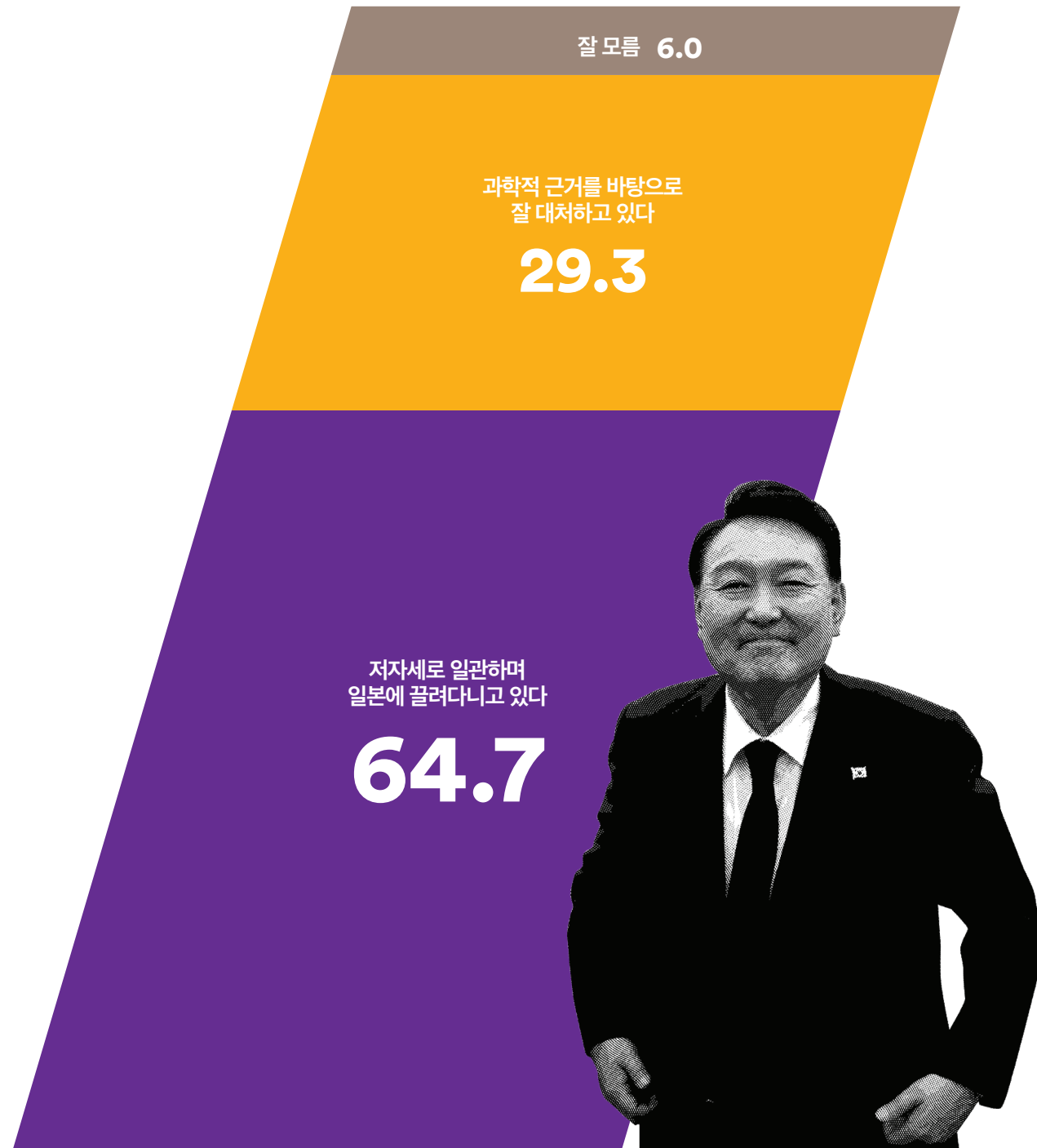


10명 중 7명 정도가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응답

연령대 by 성별 변수를 포함해,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앞섬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모르겠다

Q.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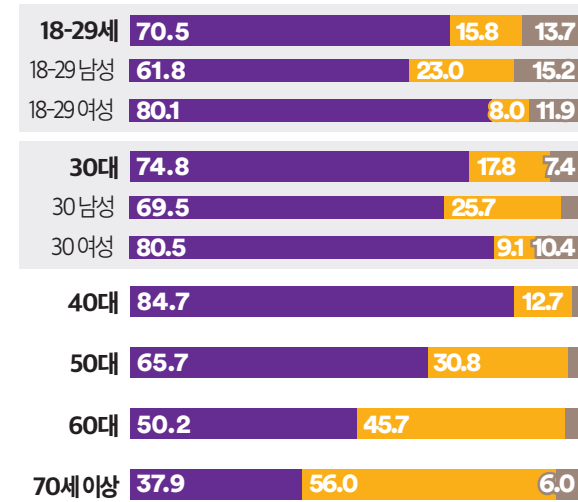


10명 중 6명 이상은 '저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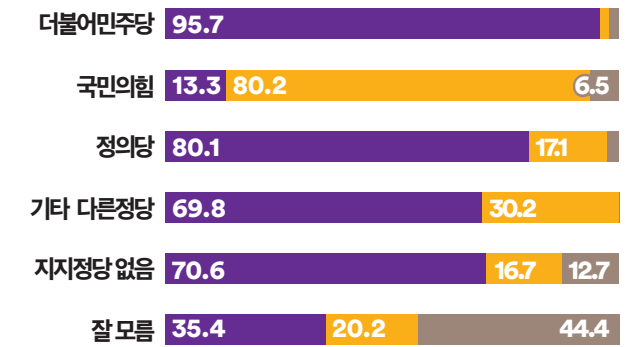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성별,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저자세로 일관하며 일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응답 우세

70세 이상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 세대간 차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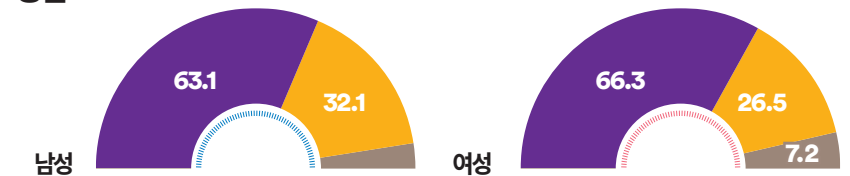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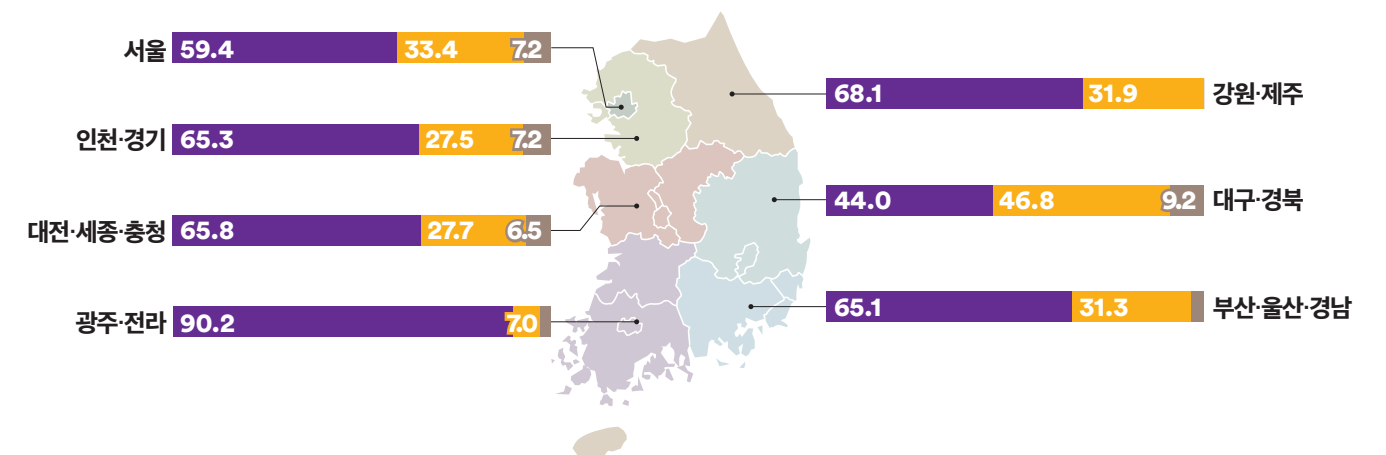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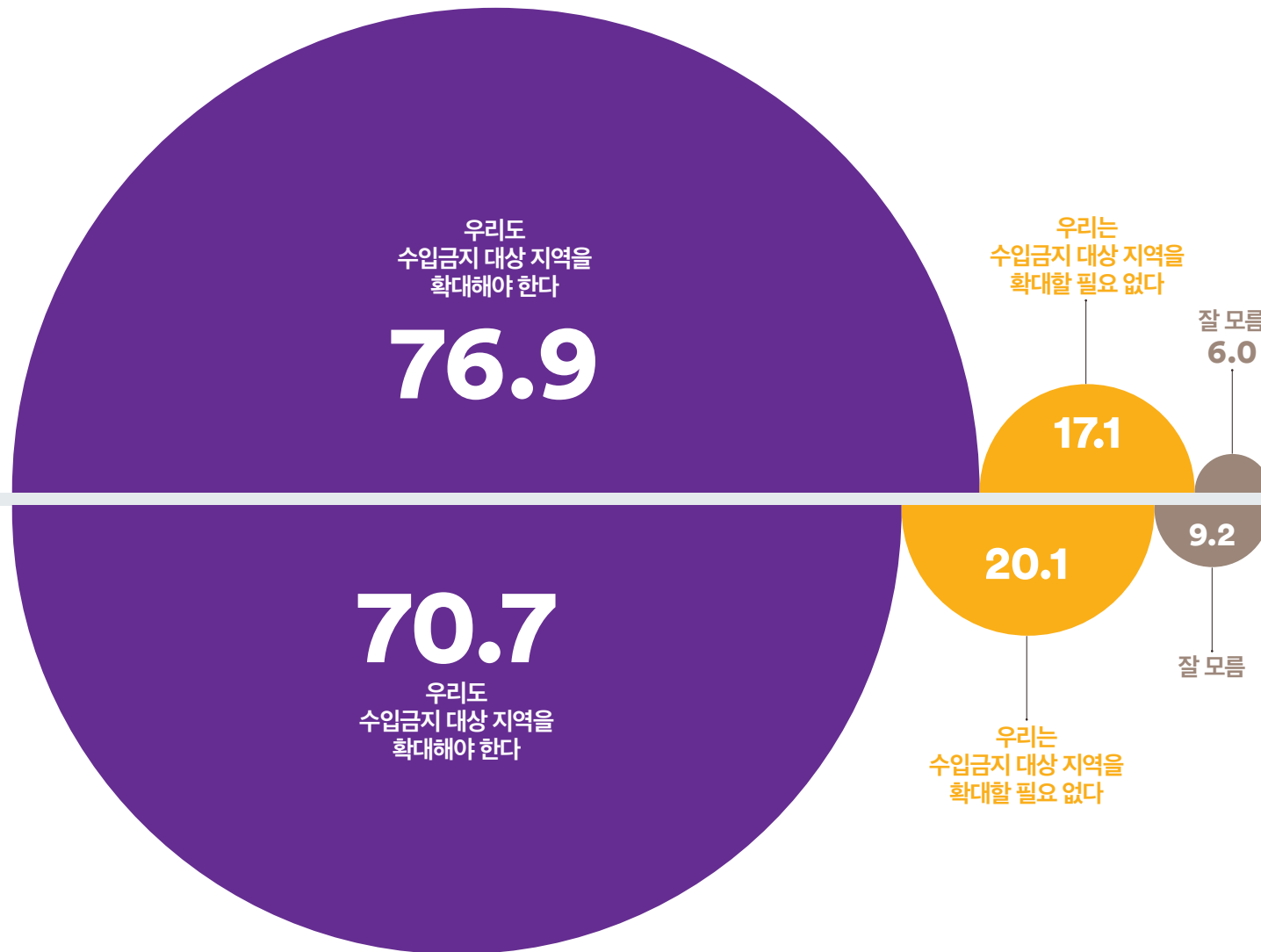
끌려다니고 있다 잘 대처하고 있다 모르겠다



Q.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을 5개 현에서 10개 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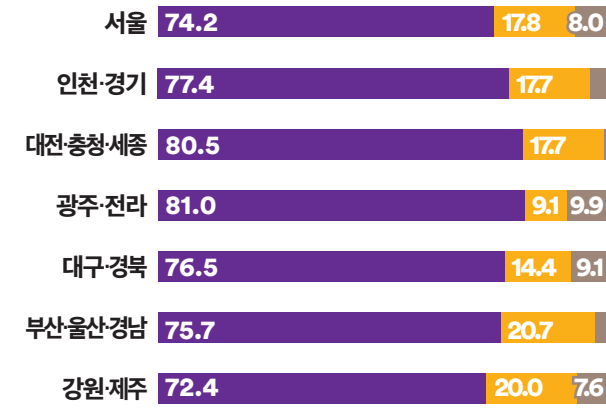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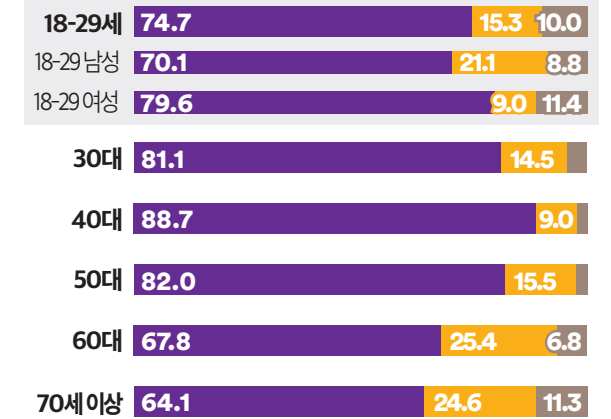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10명 중 7명 이상은 '수입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
모든 성·연령대·권역별 변수에서 '우리도 수입금지 대상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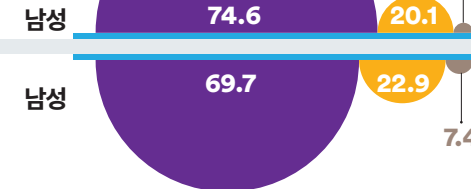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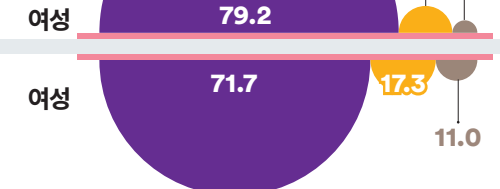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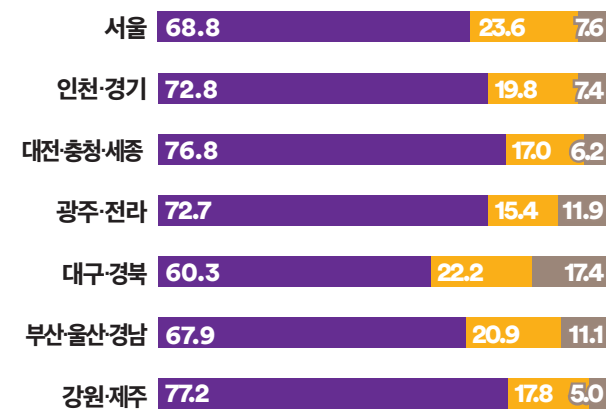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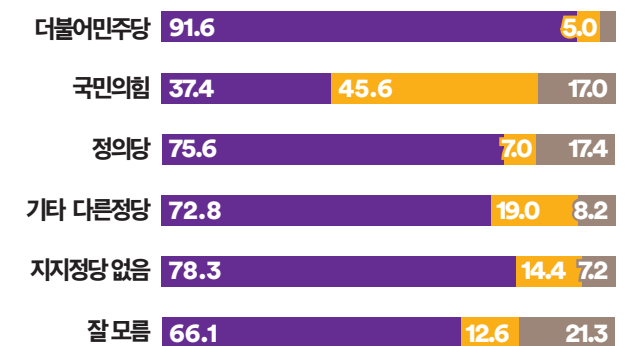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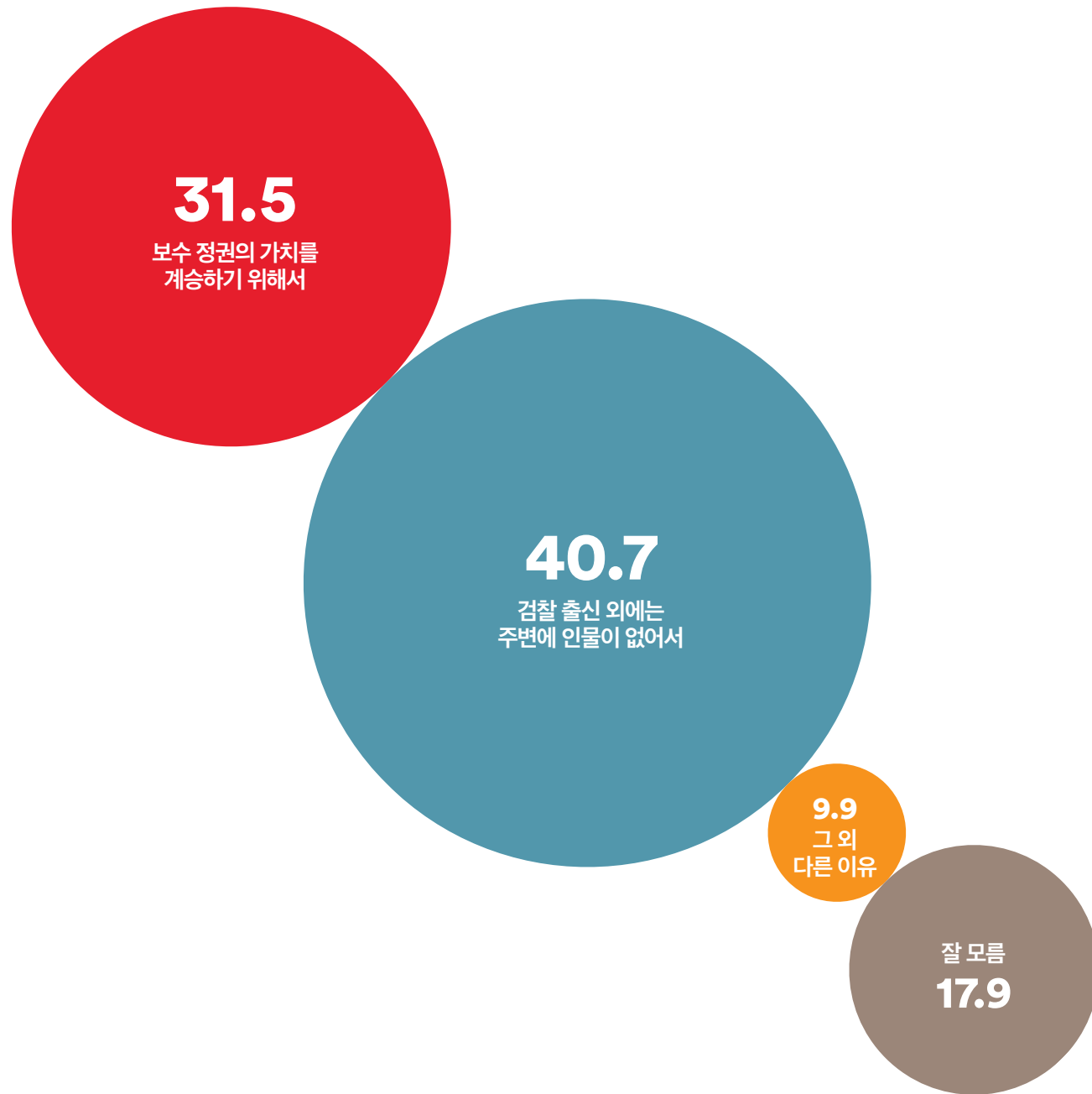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확대해야 한다 확대할 필요 없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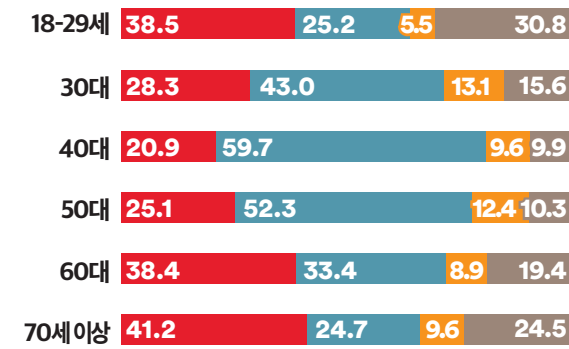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유인촌 등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계속 중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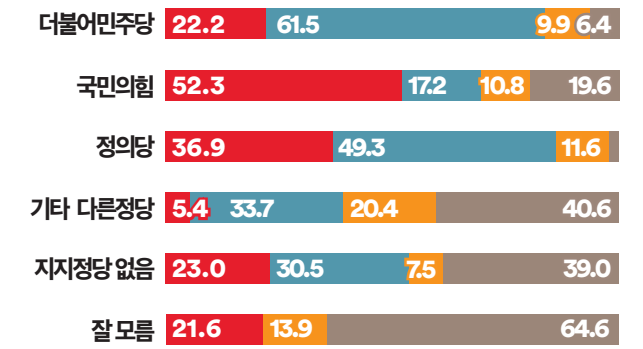


10명 중 4명은 '검찰 출신 외에는 주변에 인물이 없어서'라고 응답, '보수 정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라는 응답 대비 우세
 '검찰 외 주변 인물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30~50대, 서울, 경인, 호남, PK, 강원·제주에서 앞섬
 18~29세, 60대 이상, 충청과 TK권에서는 '보수 정권 가치 계승을 위해'라는 응답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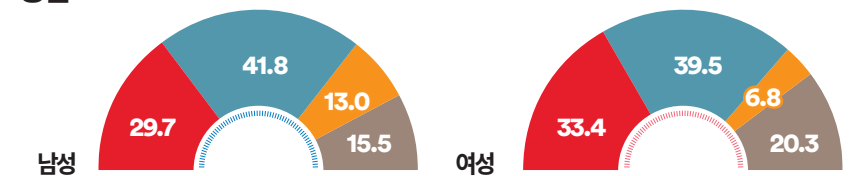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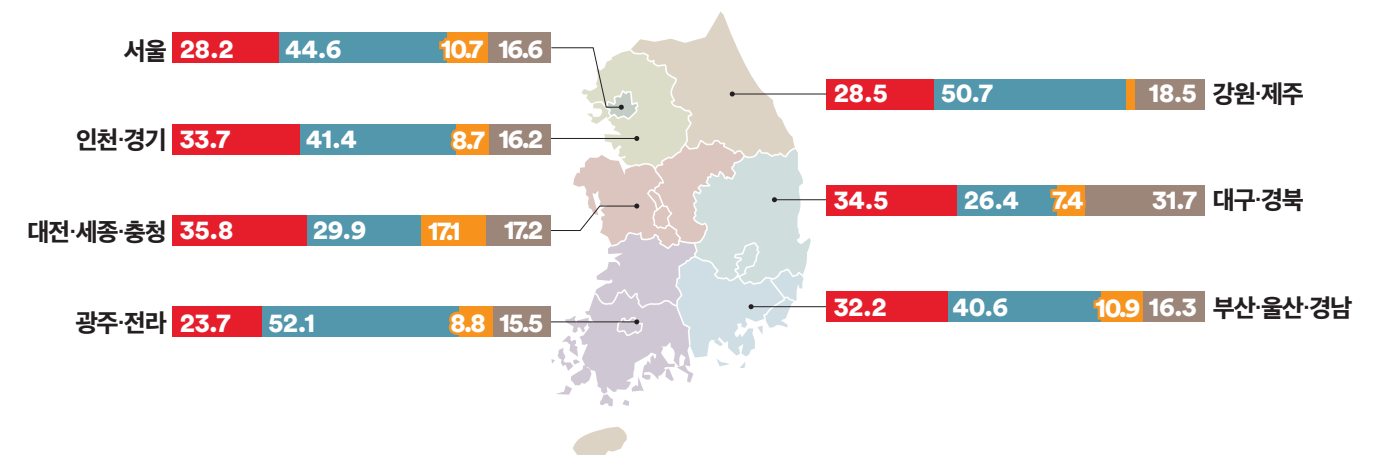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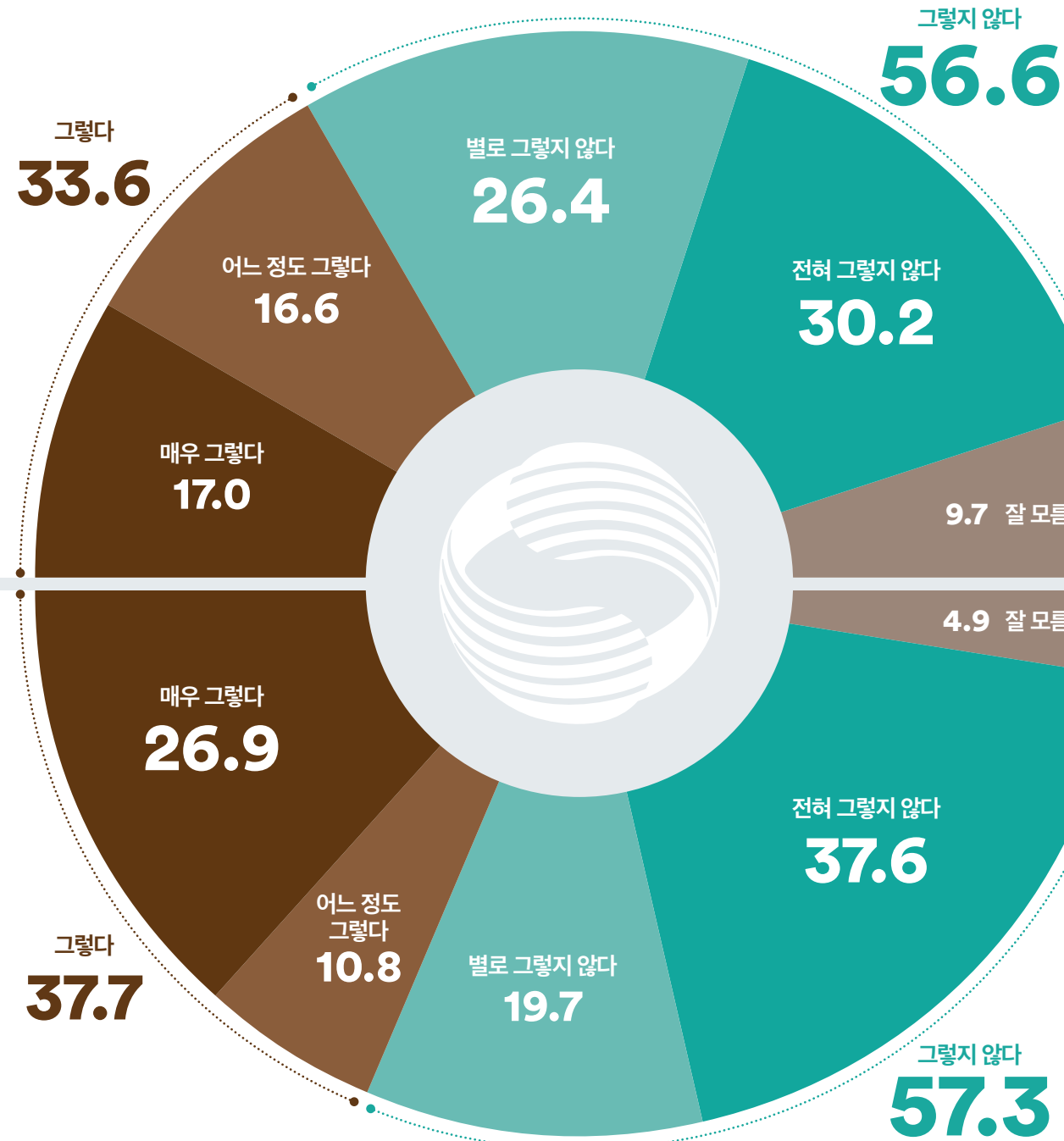


보수 정권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검찰 출신 외에는 주변에 인물이 없어서 그 외 다른 이유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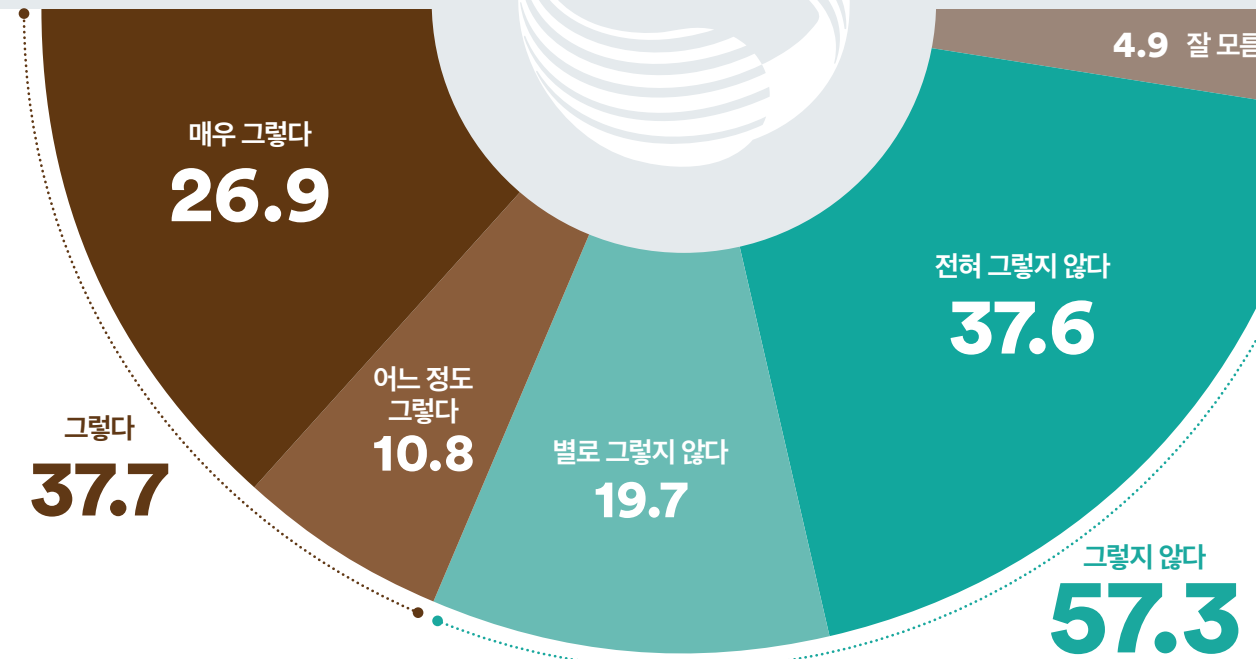


Q. KBS의 뉴스나 시사프로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편파보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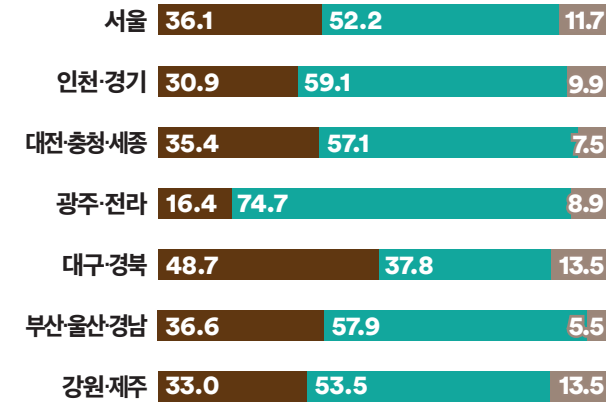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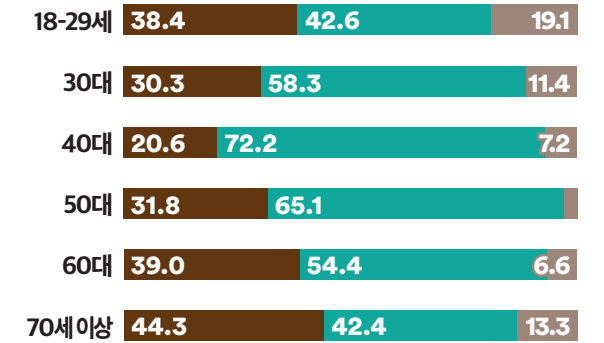


두 조사 모두 '더불어민주당에만 유리한 편파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TK(그렇다: CATI 48.7%, ARS 48.0%)을 제외한 두 조사의 나머지 모든 권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앞섬
30대·40대·50대 연령대(CATI 60대, ARS 18-29세 포함)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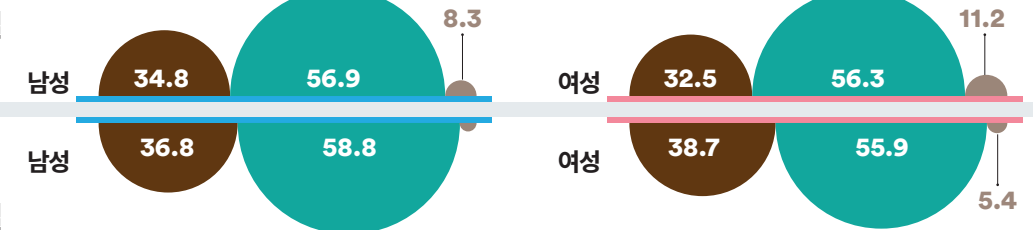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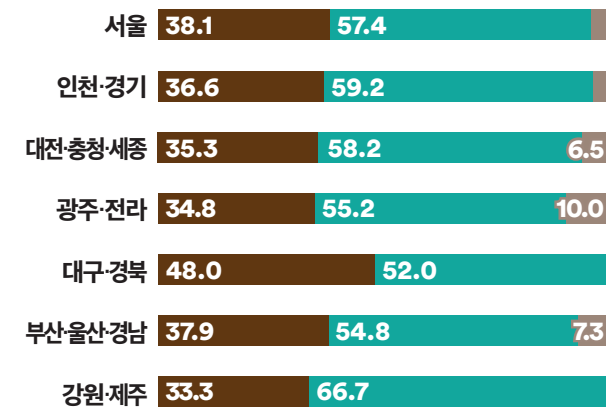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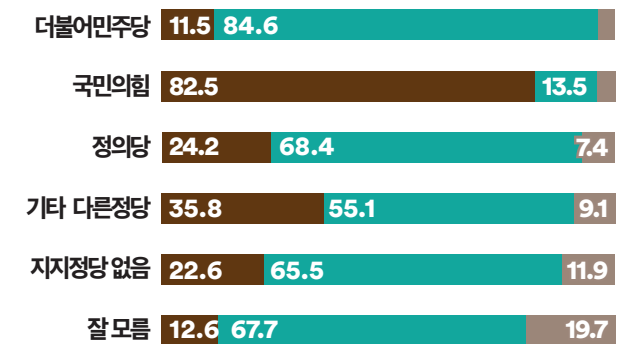
성별



권역



정당지지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307_04



대한민국 마음의 지도를 그린다